

진도군 김 산업 도약 신호탄...성경식품 2공장 건립 본격화

지난해 (주)성경식품·(주)거해와 500억 규모 투자협약 후속조치

녹진리 일원에...마른김 생산라인 10기 구축·김 클러스터 조성

진도군이 성경식품 제2공장 건축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김 산업 대도약의 신호탄을 올렸다.

진도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주성경식품, (주)거해와 체결한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성경식품 제2공장 입주와 건축 절차가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경식품 제2공장은 지난해 11월 19일에 진도군과 제2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금 약 19억원을 납품했다.

진도군은 11월 말부터 군내면 녹진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2만 8000제곱미터(m²) 규모로 조성될 성경식품 제2공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경식품 제2공장은 올해 마른김 생산라인 5기 를 준공해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5기를 추가로 준공해 총 10기의 생산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생산 체제가 완성되면 128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약 1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마른김 가격이 안정되고 수급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역 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경식품 제2공장 건립은 앞서 진도군, 전남도, 주성경식품, (주)거해가 체결한 500억원 규모 투자 협약의 핵심 사업으로 물김에서 마른김, 조미김으로 이어지는 김 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마른김 가공 능력의 확충과 저장, 유통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해 물김 수급의 불안과 폐기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은 물김 위판에 '전국 1위'와 '김 산업 진흥 구역 지정' 등 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김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경식품 관계자는 "진도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생산 경쟁력을 확보해 케이(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성경식품 제2공장의 입주는 진도 김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진도군이 글로벌 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주성경식품, (주)거해와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기념촬영 모습. <진도군 제공>

영암군, 시외버스터미널 매입...터미널·복합문화공간 활용

교통여건 변화 이용객 급감 침체
리모델링 통해 상권 활성화 모색

농촌지역 소규모 시외버스터미널이 교통여건 변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터미널을 매입해 터미널 기능은 물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암읍 남풍리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했다.

영암군은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신청하자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설을 임대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영암 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997년 현재의 위치로 확장·이전할 때만해도 지역의 관문이자 전남 강진과 해남·완도 등을 연결하는 서남부권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용 이용 증가 등 교통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이용객이 급감했다. 이용객 감소는 매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등의 경영수익 악화로 민간사업자가 폐업을 신청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도나 운영 포기는 영암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소규모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을 닫을 수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던 터미널을 지자체에서 임대하거나 직접 매입해 운영하



영암 시외버스터미널.

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매입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해 단순 교통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층은 버스터미널 기능과 함께 시니어카페, 신活力플러스 시설 등 중간지원조직을 배치하고, 2층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

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영암의 관문이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쇠퇴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상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동계 전지훈련 4만명 유치...경제효과 41억원 기대

생활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해남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찾고 있다.

해남군은 2025~2026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12개 종목, 연인원 4만 1000여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펜싱 스토브리그(3일)에 80팀 600명, 축구 스토브리그(9일)에 선수·감독 504명, 야구 스토브리그(14일)에 13개 학교 400명 등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1만 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국제 규격의 해남스포츠파크와 해남을 구교체육관이 완공되면서 전지훈련 종목과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전지훈련단 유치는 관광 비수기를 맞은 겨울철 지역 경제에도 단비와 같다. 선수단뿐만 아니라 가족들 소비까지 이어지면서 식당과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이 활기를 고 있다.

해남군은 전지훈련단을 대상으로 훈련과 관광을 결합한 특화 프로그램인 해남 스포투어(Sportour)를 본격 가동한다.

훈련 외 시간에 공룡박물관, 땅끝마을, 우수영 관광지 등을 방문하고 지역 내 업체와 연결해 고구마🍠 만들기, 장담그기, 웨니스 체험 활동도 지원한다.



해남을 찾은 동계전지훈련단이 장민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은 동계 시즌 전지훈련을 통해 41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을 찾은 선수들이 별편함이 없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남을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 교육생 모집

2월 6일까지...귀농 희망자 대상

무안군이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 입소 교육생을 모집한다.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무안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 도시민을 대상으로 운

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입소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약 10개월간 체류하며 귀농 정착을 위한 영농 이론과 실습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무안군 현경면에 위치해 있으며, 주거 공간은 원룸형 조립식 주택(27m²) 7호와 가족형 조립식 주택1호 등 총 8호로 구성돼 있다.

교육 공간으로는 영농 실습을 위한 시설하우스

2동과 실습 포장 1개소(2900m²)를 갖추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예비 귀농인은 다음 달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승현 무안군 인구정책과장은 "체류형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실제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구체적인 귀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무안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상담은 매월 2회 지정된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1대1 맞춤형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상담은 지난 12월 31일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전기차 25대 구입과 총 전소 25개소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대인 신안군수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밤이 되어 온 1004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전환되면 교통 복지가 한 단계 더 강화될 것이다"라며 "지정 기부사업 모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 계신 향우 여러분과 기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상담은 매월 2회 지정된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시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현장에서 1대1 맞춤형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상담은 지난 12월 31일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으며 목포시 전 동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음 상담은 26일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법률 문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상담에는 고문변호사 4명과 위촉변호사 3명 등 총 7명의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사·가사·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민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에는 고문변호사 4명과 위촉변호사 3명 등 총 7명의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민사·가사·생활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민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2026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대면 평가 등 세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수산양식 산업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지원'으로 군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수산양식 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국비 15억 원을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2026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대면 평가 등 세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수산양식 산업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지원'으로 군은 전남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수산양식 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하며 국비 15억 원을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관내 거주 농업인 15명 내외를 모집한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수출형 K-푸드 및 뷔티·헬스 상품 개발 ▲수산양식 자동화 기자재 분야 육성 ▲시제품 제작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지원 ▲국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이며, 관내의 약 2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